

전주가 키운 ICT기업

대한민국 이끌 콘텐츠 기업으로 성장

광주서 열린 'Ace-Fair' · 프랑스 칸에서 열린 MIPCOM 등 문화콘텐츠들 국내 · 외 바이어 관심

전주시가 키운 ICT(정보통신기술)기업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콘텐츠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전주시는 지역 문화콘텐츠 개발과 문화기술산업(CT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해온 기업 발굴 및 성장 지원 사업이 올 한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9월 광주에서 열린 'Ace-Fair'와 10월 프랑스 칸에서 열린 MIPCOM 등 각종 전시회에서 전주시가 발굴해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 다양한 문화콘텐츠들이 국내·외 바이어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다.

대표적으로, 전시회 참가 기업 중 (유)올메이하우스(대표 배효상)는 3D 애니메이션 '수빈스토리' 시리즈를 프랑스 MIPCOM 전시회에서 선보여 중국과 벨기에 인도네시아 등 해외 배급사(CP)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고, 현재 중국 등 해외계약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MBC와 JT 등에서 '수빈스토리 시즌'을 방영했으며, 차기작인 '수빈스토리 시즌2'는 2017년 MBC 봄 편성 이 확정돼 현재 방영시간을 조율하고 있다.

또한 전통상당과 풍남문 등에서 열린 야간 미디어 파사드 공연으로 많은 관광객의 호응을 얻고 있는 (주)써티에이즈(대표 송대규)는 전주 외에도 순창 강천사 야간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타 지자체로 사업을 점차 확장



수험장 자리 확인하는 학부모

2017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소집일인 16일 전주 기전여자고등학교를 찾은 학생과 학부모가 수험장을 확인하고 있다.

해 나가고 있다.

특히 이 업체는 눈부신 빛의 향연을 펼치는 2017년 호주 비비드(vivid) 페스티벌에 야간경관 문화콘텐츠 제안을 계획하는 등 창업 4년만인 올해 연 매출 10억원의 성과가 예상되는 등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의 기대주로 급부상했다. VR콘텐츠 제작기업인 이모션

(대표 김호철)은 한옥마을 등을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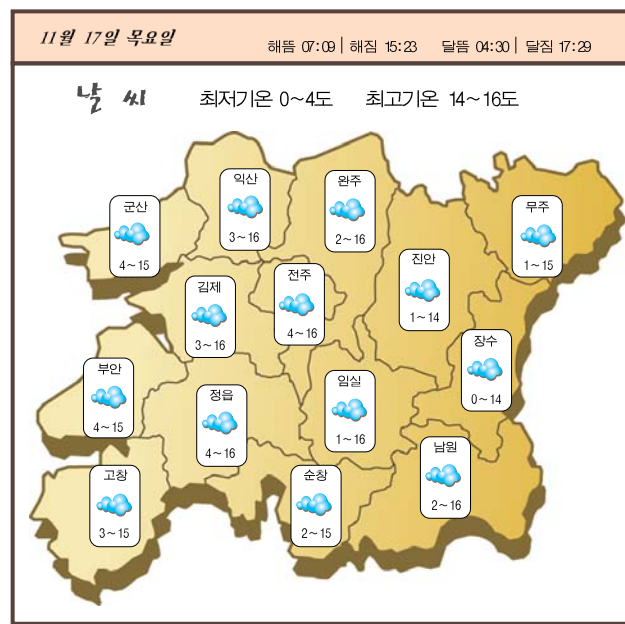
로 한 VR콘텐츠를 선보여 완주군 등 타 기관과 VR콘텐츠 제작계약을 체결했다. 이 업체는 또 조만간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자체 제작한 VR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들 3개 기업은 모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서문신성)에 신생 벤처기업으로 입주해 전주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장 지원을 받으며 성장해

온 기업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00년부터 모바일 게임콘텐츠 중심의 문화콘텐츠 제작지원에 힘을 쏟았다. 최근에는 3D 애니메이션과 미디어파사드, VR(가상 현실)콘텐츠 등으로까지 영역을 넓혀 매년 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김영재 기자



전북대병원 지역민 대상 '췌장암' 건강강좌

전북대학교병원은 16일 오후 1시 30분부터 노인보건교과센터 지하1층 백제홀에서 '췌장암'을 주제로 무료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세계췌장암의 날을 기념해 마련된 이날 강좌에서는 ▲췌장암(소화기내과 서승영 교수) ▲췌장암 바로 알기(소화기내과 이승욱 교수) 등의 내용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췌장암은 우리나라 암 발생 9위, 사망 5위를 차지하고 있는 위험질환으로 매년 5000명 이상의 신규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5년 생존율이 7~8% 밖에 안될 정도로 치료가 힘든 질환이다.

강의를 진행한 이승욱 교수는 "저 구형 질환으로 알려진 췌장암이 최근에는 10대 암에 들어갈 정도로 국내에서도 발생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췌장암을 예방하기 위해 확립된 예방수칙이나 권고되는 검진기준이 없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요하는 질환이다"며 "췌장암으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발병여부를 조기발견하고 췌장암을 유발하는 위험요인인 흡연과 과도한 음주 기름진 육류 섭취 등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지역 공인중개사들, 젠트리피케이션 막는다

(동지내몰림 현상)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전주시와 전주시역 공인중개사들이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 등으로 인해 원주민과 영세업자가 다른 곳으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동지내몰림 현상) 방지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전주시는 16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 상설교육장에서 전주시역 부동산 공인중개사 200여명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상권 활성화로 임대료가 오르고 임대료 인상으로 인해 원주민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할 조짐을 보이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시와 공인중개사들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방지와 도시의 지속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젠트리피케이션의 이해와 방지, 지역발전을 위한 상호 공조체계 구축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관련법 준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예방을 위한 사회적공감대 확산을 위한 공동노력 ▲젠트리

피케이션 예방 정책 추진에 대한 상호 협력 등이다.

시는 이날 협약에 따라 앞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소재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사회적공공화를 위한 제도 및 홍보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협약 체결에 이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과 이해'를 주제로 한 전북대 도시공학과 황지욱 교수의 특강도 진행됐다.

/김영재 기자

서남대 정상화 관련 컨설팅 2차 면담 실시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서남대 정상화 관련 컨설팅 2차 면담이 실시돼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서남대 정상화 관련 컨설팅 2차 면담이 15일 대구 인터블고호텔에서 열렸다.

지난 15일 대구 인터블고호텔에서 '2016년 대학구조개혁평가 제2차 후속 상시컨설팅'으로 열린 면담에는 서남대학교 대학정상화 관계자와 예수병원, 명지병원 구 재단 등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예수병원에서는 김철승 제2진료부장과 윤용순 대외협력부장 등의 관계자들은 "정상화의 핵심인 횡령금액 334억원 변제와 관련해 200억원은 인수 즉시 출연하고 나머지 금액은 부동산을 담보로 하되 1년 이내에 출연한다는 내용의 서남대 정상

화 방안과 재정여건 서남대 중장기 발전계획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사학진흥재단 관계자는 "예수병원과 명지병원, 구 재단 등 서남대 관계자의 대면 조사를 모두 마치고 3개 참여 기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을 거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관할청인 교육부 및 사학분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서남대 정상화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던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지난 8월 컨설팅을 중단한 후 교육부는 새로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서남대 정상화 컨설팅을 맡겨 지난달 27일 제1차 면담을 진행했다.

/고민형 기자

2016 전북 노래 자랑 및 경연대회

11월 27일

삼성문화회관 소강당

▶ 주최: 전주매일, 환경일보사

▶ 접수: 11월 25일

▶ 예선: 11월 26일

▶ 후원: 전북도청, 전주시청

▶ 문의: 010-2131-0448(금병찬 환경신문본부장)